# 나주시, 다도면에 공공형 버스 도입

## 오는 11일 버스 개통식 개최 … 15인승 소형버스 2대

## 다도면 행정복지센터서 암정-덕림-도동-행산 구간 순환 운행

나주시가 교통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형 교통 모델인 '공공형 버스'를 첫 도입한다.

나주시는 9월 11일부터 타 읍·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다도면에 공공형 버스를 운행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다도 공공형 버스는 15인승 소형버스 총 2대(예비차 1대)로 기·종점인 다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암정 · 덕림 · 도동 · 행산' 약 25KM 구간을 경유해 상·하행 10회씩 하루 총 20회 운행한다.

첫차·막차시간은 상행 07:00/19:45, 하행 07:30/20:05이며 버스 승강장은 기존 노선과 동일하다.

요금(카드)은 △일반성인 7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300원으로 환승 서비스는 시내버스 요금 체계에 준해 적용된다.

버스 개통식은 11일 오전 10시 다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공형 버스는 근로기준법 개정('18. 2.)에 따른 버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인력난과 버스 이용객 감소로 대부분 비수익 노선인 농어촌버스의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의 일환이다.

나주시는 지난 해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선정을 통해 성공적인 공공형 버스 운행을 위한 기존 노선과 신규 운행 노선의 효율화 방안, 배차·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대책,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해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그간 타 지역에 비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다도면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담양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 코로나19 재확산에 청사 방역·방호를 강화

담양군이 전국적인 코로나19 재확산에 청사 방역·방호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사회 방역의 정점에 있는 군이 뚫리면 체계적인 방역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전남도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청사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청사 내 별도 상담 장소를 마련해 민원인을 응대하고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음료 제공 또한 중지한다.

또한 현재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구 발열체크와 민원실 등 민원인 응대가 많은 직원 자리에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했으며, 매일 청사 각 사무실과 입구 손잡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청사 사무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제도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직원들에겐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회식을 삼가하고 하계 휴가 시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청사 방호를 최대한 강화해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곡성군, 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폐지

## 관련 조례 등 입법예고…규제입증책임제 실효성 강화

곡성군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의 개정안을 지난 8월 26일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주민 또는 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의 존치, 폐지, 개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요청이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곡성군의 경우 군청 홈페이지(WWW.GOKSEONG.GO.KR)를 통해 규제입증 요청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법규를 개정하면서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규제의 심사에 관한 규정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지난 7월 규제입증 요청제 도입에 이어 규제입증책임제의 법적근거를 조례와 규칙에 규정함으로써 군민과 기업이 규제에서 구제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 3월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등록된 규제 168건을 검토하고, 이 중 폐지 및 완화해야 될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에게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불편했던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장성군, 농촌 빈집 정비사업 신청

## '농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해 마을의 환경개선

사람이 살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마을 전체의 조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에 장성군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자에게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마을의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 및 건축물이다.

장성군은 올해 사업량 140동 가운데 88동의 사업을 완료한 상황으로, 나머지 52동 분에 대해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해 해당 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 규모는 동당 100만원으로, 사업 완료 후에 일괄 지급된다.

또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은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172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말까지이며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철거 비용은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곡성군 9월 미국 시작 배 해외시장 공략 나선다

## 이번달 첫 배 수출 진행

곡성군이 9월 미국을 시작으로 배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곡성군은 원황과 황금 배 품종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미국을 상대로 올해 첫 배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군의 올해 배 수출목표는 약 400톤으로 지난해 미국, 대만에 470톤(16억 상당)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다. 당초 500톤을 계획했으나 냉해,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해 100톤 가량 목표량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곡성군 측은 각종 기상 여건을 이겨낸 과실들인만큼 품질은 어느 때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고 있다.

배 재배 및 수출은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 38농가가 약 30HA 규모에서 배를 재배하고 있으며, 2000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 수출전문단지로 지정받았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조만간 신고 품종을 포함해 2021년도 2월까지 계속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배 수출 준비가 한창인 8월 31일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장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유 군수는 농민들에게 "올해 냉해, 폭우, 태풍에도 배를 잘 재배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린다. 여러분들께서 땀 흘리신만큼 곡성 명품 배가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곡성군은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가들과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곡성=김광휘 기자